



제8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번째인 92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1백66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5편, 동상10편, 장려30편 등 총 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이번호에는 동상4편을 소개한다.

나의 건강과 우유

양승인

경기 평택 현덕국교 6년

우리 집 농사는 논 13마지기에 서울사람의 논 10마지기까지 합해서 23마지기이다. 내가 1학년 때만 해도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운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오빠와 언니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빠, 언니 학비 대실 때가 되면 한숨들을 내쉬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 다달이 내야 되는 우유값 달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작년5학년 때였다. 부모 말씀도 듣지않고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우유를 안 먹겠다고 말씀 드렸다. 선생님은 이유를 자꾸 물으시기에 우유를 마시면 배가 우글거리고 배탈이 자주난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럼 나중에 배탈이 나오면 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간식시간에 다른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을 때 먹고싶은 것을 참을 수 있었다. 6월25일이었다. 6·25 사변에 대하여 교장 선생님 훈화가 있던 날이다. 6·25전쟁 이야기를 10분 정도는 하신것 같다. 나는 눈에서 별이 보이는 듯 하더니 그 다음은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양호실이었다.

“

부모님이 오빠,
언니 학비 내실때가
되면 한숨을 내쉬면
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 다달이 내야하
는 우유값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
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께 배가 우글거리
우유를 안먹겠다고
말씀드렸다.

”

간호해 주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교장선생님 훈화를 듣다가 빈혈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저녁 때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내가 빈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야단을 치시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한숨을 쉬시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농사만으로는 자식들을 키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산만희집에 일하러 다니시면서 우유를 먹도록 해주셨다. 그래도 나는 매달 우유값을 낼 때가 되면 늘 우유값 3~4천원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먼저 빈병을 모아서 가게에 갔다 팔았다. 어떤 때는 천원도 못되었지만 병이 생기는 대로 갔다 팔았다.

올 3월 부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논뚝이나 밭뚝에 흩어진 냉이랑 씀바귀를 캐다가 안중의 유신 식품 가게에 갔다 팔았다. 빈병을 팔 때 보돈이 훨씬 많았다. 한달 동안 모은 돈이 우유 값은 충분히 낼수 있었다.

유신식품 가게 아저씨가 철에 따라 어떤 나물을 해오라고 알려 주셨다.

이 소문이 학교에 알려지자 전교 어린이 회의때 착한 어린이로 뽑히고 주생활목표를 발표할 때 내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이 들으시고 올 여름 방학식 때 여러 어린이들 앞에서 나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또 이것을 부모님이 아시고 이제는 네가 나물 캐다 팔지 않아도 네 우유값은 넉넉히 대줄 수 있다고 하셨다. 그후부터 나는 우유를 멈추지 않고 계속 먹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번도 빈혈을 일으킨 적이 없다. 공부도 뒤지

지않고 가을 운동회 때도 맨손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모두 1등을 했다.
이것이 모두 우유를 열심히 마신 효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유를 마시겠다.

동상

우유와 학교생활

김나리

강원 강릉 남강국교 6년

남달리 우유를 좋아하는 나는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우유 급식을 하였다. 달콤한 우유가 매일같이 내 입속에서 사르르 녹아 들어갔다.

매일 같이 그런 맛을 느낄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입속에서 오물오물 씹어 보기도 하고, 매일같이 빨대를 끼워먹던 것을 우유팩에 직접 입을 대고 먹으니 이제 유치원생 티를 벗고 진짜 국민학생같이 의젓해 졌다는 생각이 1학년의 그 고사리 같은 마음에도 느껴져 매일같이 기쁘게 우유를 먹곤 했다.

하지만 그런 흔쾌감이나 우유를 먹는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만 갔다.

두세달쯤 지나자 이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우유를 점점 학교에서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우유를 좋아하는지라 꼬박꼬박 우유를 먹던 내가 우유를 자주 집에 가져오자 어머니께서 은근슬쩍 걱정을 하시는 눈치였다.

“나리아! 흰우유가 먹기 싫어 졌니? 학교 급식끓고 집에서 초코우유 받아 줄까?” “아니요. 우유 급식 계속 할꺼예요.”

우유를 먹는 재미가 없어졌을 뿐이지 우유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연이어서

“엄마! 나 효진이 우유먹을때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 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그 다음날부터 난 당당하게 우유를 집으로 가져와 먹을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두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 실수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때는 3학년 때였다. 그 실수란 우유를 바로 집에 가져가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놔두고 집에 온다든지 아니면 가방 속에 넣고 왔다가 꺼내지 않고, 다시 학교로 가져가곤 하는 것이었다.

토요일은 누구나 흥분하기 마련인데 국교 3년생인 나도 토요일은 흥분과 기대로 가득차게 되곤 하니 말이다.

난 그날 아침도 예외없이 책가방을 책상위에 올려두고, 책을 모두 꺼내어 책상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다. 즐거움으로 가슴이 붕뜨게 한 토요일 중

“

우유를 좋아하는
지라 꼬박꼬박 우유
를 먹던 내가 우유
를 자주 집에 가져
오니 어머니께서는 은
근 슬쩍 걱정을 하
는 눈치였다.

”

레시간 이었다. 책가방을 끌려고 책을 꺼냈다. 그런데 책들이 모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급히 고개를 숙여 책상 서랍속을 들여다 보니 서랍속에는 우유가 터져 있는 것이었다. 난 거의 울상이 되어서 우유봉지를 쓰레기통에 집어 넣고, 걸레로 우유를 닦아 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붙은 책을 떼어내자니 정말 곤욕이 아닐수 없었다. 잘 떼어낸 책은 표지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표지가 떨어져 나갔다. 정말 짜증이 나고 괜스레 우유가 밑기까지 하였다. 울상이 된 내 얼굴을 보신 어머니께서 이유를 물으시더니,

“쫄쫄, 그러길래 좀 차분히 조심을 했어야지 그런 일이 없지. 무슨 여자가 그렇게 덜렁하냐?”

라시며, 나무라듯 말씀하셨다.

그날의 실수 이후로 난 무슨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우유를 먹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처음에는 도시락에 물을 싸지않고, 물대신 우유를 먹곤 하였다. 처음엔 우유를 먹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유가 왜 좋은지를 분명히 알고 먹기로 하였다. 첫째로 우유는 칼슘이 많아 뼈와 이를 튼튼히 해주며, 또한 단백질, 무기질도 많이 들어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는 항상 학교에서 우유를 먹는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우유를 조금이라도 신선할때 먹는다는 생각과 조그만 힘이지만 우유팩 수거에 도움을 준다는 자랑스러움으로 우유를 마신다.



동상

나는 우유대장

김유진

대구 대덕국교 5년

“애,애 저애 좀 봐. 피부가 어쩔 저렇게 우유빛처럼 될까?”
지나가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언니들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언제나 그런 소리를 들곤 했다. 얼굴은 별로 예쁘지 않지만 피부는 내가 보아도 희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해봤다. 나는 태어날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좀 별나게 태어났고 또 이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본게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우유여서 그런걸까? 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유와 만난 것이 태어남과 동시 였으니 인연이 참 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셨을때 입덧이 심해서 다른 음식은 전혀 드시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우유는 드실 수가 있어서 하루에 3개씩 밥대신 드셨다는 얘길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유를 먹어서 인지 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나는 슬슬 우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우유 신청을 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신청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보시면 억지로 먹는체 하고 살그러니 우유를 쓰레기통에 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선생님 몰래 우유를 먹는체 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는 길이었다. 길가에 옷차림이 초라한 아이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주머니를 뒤적거리려 보았다.

그러나 돈이 한푼도 없었다. 그래서 무심코 우유를 쥐어 주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매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왜 저렇게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며 몹시 신기한 듯이 보면서 돌아왔다. 집에 온 나는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우유를 보곤 또 꿈무늬를 빼려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유진아. 우유를 잘 먹어야지. 우유엔 너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풍부하지 아니?” “영양만 풍부하면 뭐해요? 맛이 없던데 뭐.” “옛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던? 실과 시간에 우유가 이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배우지 않았니? 처음엔 별맛이 없어도 한모금 마시고 그맛을 음미해보면 의외로 고소한 맛을 느낄거야.”

이튿날 나는 우유를 한모금 입에 물고 어머님 말씀을 생각 하면서 그맛을 느끼려 애를 써 봤다.

한모금, 두모금, 세모금 …….

고소한것 같기도 하였다. 어느새 내 손에 들려 있던 우유통이 가벼워 지고 있었다. 이렇게 차츰 길들여진 우유맛에 나는 요즘에는 우유에 밥을 말아서 먹기도 한다.

그러나 내 동생이 우유를 먹기 싫어해서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저녁때 쫓이면 온통 실랑이가 벌어진다. 먹기 싫다는 동생, 몸에 좋은 식품이니 꼭 먹어야 한다는 어머니.

그런 실랑이 뒤에 황재는 내가 한다.

“꿀꺽, 꿀꺽.” ‘이렇게 고소하고 시원한 우유를 내동생은 왜 저렇게 안 먹으려고 할까?’ “넌 그만 먹으렴. 이 우유대장 아니 우유 돼지야.”

유난히 비쩍 마른 동생에게 우유를 못먹인 어머니의 핀잔 소리가 들려도 난 우유만 보면 마신다.

그래서 난 건강한가 보다. 그만큼 우유를 좋아하고 많이 먹게 되어 ‘우유대장’ 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조금씩 모아둔 우유팩은 모아 자원 재활용을 하게 되었으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

한모금. 두모금……고소한것 같기도 하였다. 어느새 내손에 들려있던 우유통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차츰 길들여진 우유맛에 나는 요즘 우유에 밥을 말아서 먹기도 한다.

”

우유를 싫어하는 친구들아!
우유를 많이 먹어. 나처럼 튼튼하고 피부가 우유처럼 흰 우유 대장이
되지 않겠니?

동상

우유 밥

이영주

충북 청주 덕성국고 5년

“라라라, 너 선물 뭐 샀니?” “나? 안 가르쳐 줘.” “치, 암체…….”
오늘은 경은이 생일이다. 모두들 손에 손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즐겁게
경은이네 집으로 향하였다.

“경은아!”

경은이네 집은 신라 아파트였다. 경은이네 집 현관으로 경은이를 부르
면서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하! 냄새가 참 고소한데?” “무슨 냄새지?”

그 때,

“경은이 친구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앉거라.”

경은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상에는 맛있는 음
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고소한 냄새는 계속 코를 찔렀다. 얼마뒤, 경은이
엄마께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들고 오셨다.

‘음, 맛있겠다.’ 기대를 하고, 밥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들아, 이것이 우유밥이란다. 참 맛있고, 영양가도 많단다.” “우유밥?”

친구들은 얼굴을 찡그렸다. 밥 냄새를 맡아보니 비린내가 나고, 이상한
냄새도 났다. 우리는 다 먹지 못하고 있는데, 경은이는 맛있는지 잘 먹었다.

“애들아, 어서 먹어 봐. 맛있어.” “…….”

경은이는 계속 권했지만, 먹을수가 없었다. 경은이에게 선물을 주고 다른
음식들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경은이 엄마께서 우유밥을 해주셨는데, 누릿한게 먹을수가 없
었어요.

“우유밥?”

어머니께서도 놀라셨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학교에서 돌아왔
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첫번째 우유밥
냄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이 냄새는…….” “그래, 오늘 점심은 우유밥이다.” “에이, 우
유밥을 어떻게 먹어요?” “넌 우유를 안 먹어서 몸이 약한거야.” “…….”

화가 나서 아무말도 안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점심을 먹으러

“

잠시후 점심을 먹
으러 가니 내 밥그
릇에 우유밥이 담겨
있었다. 내 동생은
평소에 우유를 안먹
는데 맛있다고 벌써
먹고 있었다.

”

가니 내 밥그릇에는 우유밥이 담겨 있었다. 내 동생은 평소에 우유를 안 먹는데, 맛있다고 벌써 먹고 있었다.

“너, 맛있니?” “그럼,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도 먹어봐.”

동생이 맛있다고 하니, 우유밥이 웬지 먹고 싶어졌다.

“진짜지?”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를 내어 먹어 보았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맛있지?” “.....”

이제까지 안 먹고, 싫어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리고, 경은이네 집에서 우유밥을 안 먹었던 것이 후회됐다. 그후, 어머니께서는 자주 우유밥을 해주신다. 우유밥을 많이 먹다보니, 이제는 우유도 잘 먹게 되었다. 엄마께서는 그전보다 튼튼해진 나를 보시며 늘 흐뭇해 하신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은 우유를 더욱 많이 먹으며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우유처럼 하얗게 가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